안녕하세요 1305호입니다.

지난 약 3개월정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직접 찾아가는 것보단 먼저 글로서 말씀드리는게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.

평일에는 대략 오후 7,8시부터 12시 전후까지 발망치 소리가 지속되는 일이 많습니다. 한 번 소리가 날 때마다 5회 이상의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는데, 소리의 간격을 들어보면 약간 빠르게 걸을 때 나는 소리로 생각됩니다. 어떤 날은 들리지 않는데, 어떤 날은 너무 심합니다. 오전 6시경에도 들려서 잠에서 깰 때가 있습니다. 최근에는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려 보기도 하였으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. 가장 괴로운 때는 주말입니다. 새벽부터 들릴 때도 간혹 있으며, 주말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침, 점심, 저녁 모두 간헐적으로 발망치 소리가 들립니다. 발망치 소리가 날 시에는 제 집안 전체가 울려 헤드폰이나 귀마개를 해야할 정도입니다. 특히 평일 저녁 이후 시간이 집중적이어서 집에서 운동을 하시는 건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. 그런데 **새벽 3시**에 발망치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더이상은 참기 힘들어졌습니다.

제가 예민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으나, 손님이 한 번 방문하였을 때 발망치 소리가 1시간을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. 금요일 오후 9~10시였는데, 그 손님도 발망치 소리가 너무 크다며 신경질을 냈었습니다. 그 이후로 발망치 소리가 날 때마다 직접 찾아가 말씀드릴지 말지 수십 번 고민을 했습니다.

층간소음 문제는 건물의 설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원가 절감을 위해충분한 방음재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를 사용한 까닭입니다. 그러나 건물은 이미 지어졌고, 주민들간의 배려만이 현재 유일한 해결책입니다. 1405호 주민분의 넓은 아량으로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로간에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.